

10. 안식일을 베푸심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安息)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2:1-3).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연속으로 1장 마지막에 붙어야 될 말씀이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완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씀이다. 계획한 일이 그대로 잘 되어서 아주 만족하신 것이다.

만족하면 축제가 된다. 하나님이 매우 만족하셨으니까 일곱째 날은 축제하는 날이다. ‘안식’은 일하던 사람이 일을 마치고 쉰다는 뜻이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쉬는 시간이 아주 좋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죽을힘을 다해 달려서 골인 지점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안식하는 것이다. ‘안식’은 쉰다는 말인데 왜 쉬는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만족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쳤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다. 천지창조라는 것이 자연을 창조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자연 창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 창조를 말한 것이다.

중국에는 태극이라는 사상이 있다. 태극기의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가지는 음과 양을 의미한다. 태극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보이게 되면 음과 양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연을 두고 한 말이다. 태극기는 태극사상, 곧 음양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천지만물은 다 음과 양의 원리로 되어 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더운 데가 있으면 찬 데가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과 여로 지으셨다는 성경 말씀과 비슷하다.

사람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별자가 되어 개체로 존재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둘이 하나 되도록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고 만물을 보자.

세상에는 어느 것도 홀로 완성되는 것은 없다. 불가에서는 홀로 완성되려고 애를 쓰지만 안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애를 쓸 수밖에 없다. 둘이 합해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이 존재한다. 혼자 도를 통하려고 가 버리면 이 세상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다

도를 통하면 뭐하겠는가. 사람이 없는데 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사람이 존재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다 된 것이다.

결혼이 결국은 연합이고 연합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다.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다. 유명한 칼빈도 우리 구원의 목표는 연합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구속의 목표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연합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아직 안한 사람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크고 있는 것이다. 밥을 왜 먹는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다. 공부를 왜 하는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다. 모든 것을 결혼을 앞에 놓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해야 둘이 합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아기를 낳아야 인류가 존재한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진리다.

이것을 거스르고 도를 통해서 자유자가 되겠다고 하고 무중력 상태로 가겠다고 하고 구애가 없는 세계로 가겠다고 하면 인간은 없어지고 만다. 도를 다 통하고 나서 언제 결혼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인간은 다 없어지고 만다. 도를 통하려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다행이지 사람마다 도를 통하려고 하면 인간은 없어지고 만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콩도 두 조각이다. 두 조각이 있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이지 아무 것도 혼자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너무 쉽고 간단한 진리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과 여로 지으셨다.

태극 사상도 위대한 사상이다. 태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것인데 나타나면 음과 양이 된다. 중국 철학은 태극사상이고 태극사상은 음양사상이다. 중국에서는 음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 전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가 완전하다.

중국식으로 생각하면 인간도 자연에 불과하고 한의학에서는 인간이 자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동양의학인 한의학은 철저하게 유물론이다. 모든 것은 사람이라는 육체, 즉 물질에서 나온다는 것이 동양의학의 기본 사상이다. 모든 것이 그 물질 하나에서 나온다 해서 일체주의라고 한다.

그에 비해 서양의 희랍철학은 이원론이다.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으로 갈라져 있다. 알고 보면 조금 모자란 것이다. 그 위에 근원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안보이니까 무시하고 이원론적인 세계로 끌고 온 것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근원이 불이냐, 물이냐, 바람이냐?’라고 생각했다. 희랍철학의 근본을 보면 ‘무엇이 근원이냐? 물이냐, 불이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원론으로 고착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격적이다. 다른 것은 다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고 추상적인 철학에 불과한데 성경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증명해 줄 수 없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은 특별하다.”라는 말을 성경이 말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든 들을 데가 없다.

중국 철학에서는 인간은 자연과 같고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자연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희랍에 간다면 나는 누구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주겠는가? 선과 악 덩어리라고 할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모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이나, 나는 무엇이나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도 없다.

성경에만 나는 무엇이나에 대한 대답이 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남과 여로 지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혼자 안되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다.

창세기 2장 처음 말씀이 그것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다는 것이다. 무엇을 마쳤는가? 둘이 연합해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발전하도록 하는 그 일을 마치셨다는 것이다.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일을 마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드신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연합을 위한 일을 다 마치셨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여기 온 이유가 그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구나. 연합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구나.’ 하는 자리에 오기 위한 것이다.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된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다.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저런 말씀도 있었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위해서 있었던가? 연합을 위해서 있었다. 이 길로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다.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좋아한다.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좋아한다. 왜 그런가? 크니까 좋아하는 것이다. 안크면 저주다. 아기를 낳았는데 크지 않으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일이겠는가. 아무도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기를 낳아 놓으면 방긋방긋 크다. 날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아기를 키우면서도 수고로운 줄 모르는 것이다. 키워서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가르치고 대학에 보내고 취직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려는 것이 부모다. 빨리 키워서 손주를 낳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고상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원시적인 욕구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태어났겠는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본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시한 것 같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나는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너희 두 사람은 오늘부터 중시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대로 살아야 너희 후손들이 제대로 산다.” 결혼은 중시조가 되는 것이다.

김 씨든 이 씨든 여러분에게는 시조가 있을 것이다. 그 시조가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조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효를 가장 크게 생각했다. 나라에 대한 충성도 중요하지만 충성의 바탕은 효라고 본 것이다. 임금이 신하를 고를 때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보고 골랐다. 효도하는 좋은 집안에서 충신이 나기 때문이다. 불효하는 집안의 사람은 신하로 쓰지 않았다. 그만큼 효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현실적이었다. 조상에게 제사드리는 것을 우상을 숭배한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상이 제일 중요하다. 조상을 지켰으니깐 그래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살고 있는 것이지 그것마저 없었으면 동물과 마찬가지로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바로 이 근원적인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하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만들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별별 것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들었고 부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엄마 아빠를 만들어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맨 처음에 무엇이 생각나겠는가? ‘부모 덕분에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데 부모님들은 생전에 이런 말을 못들어 본 분들이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오면 어떤 놈은 “왜 나를 낳아서 고생을 시키느냐.”고 하고 어떤 놈은 “왜 형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고 한다. 별놈이 다 있지만 부모를 정말 기쁘게 하는 자식은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은혜를 입고 나면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난다. 명절에 세배를 하면서 “아버님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게 된다. 이 말은 아들로써 당연한 말인데 듣는 부모는 깜짝 놀란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부모에게는 가장 기쁜 말이다. 다른 것이 아무리 있어도 이 말이 없으면 부모는 완전한 만족이 안된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엄마 앞에 “엄마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평범한 말 같지만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다.

이것이 예배고 찬양이다. 이것이 찬송이다. 입으로 노래를 잘해 봤자 내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용이다. 왜 감사한가? 나를 지금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누구든지 효자가 될 수 있다. 당장 부모님에게 이 말을 해 보자.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 드려야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자. 그것은 “부모님 덕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이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을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특별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날에 비해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일하지 말라는 말을 어겼다 해서 큰 죄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다(출31:15).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더 잘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을 마쳤으면 쉴 텐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생으로 만든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참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 하는데 “아

니, 당신 혼자 만족하면 됩니까?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남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하면 그것이 안식일을 깨는 것이다. 안식일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 일도 덜 해 놓고 잠을 잡니까. 나를 이렇게 해 놓고도 잠이 옵니까?”라고 하는 놈을 살려 놓아야 되겠는가, 죽여야 되겠는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부모에게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아 놓고도 잠이 옵니까.”라며 따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머니는 ‘내가 잘못 낳아 놓았구나. 저것을 내가 자식이라고 낳아 놓고 미역국을 먹였구나.’라며 후회하실 것이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런 말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들어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저것을 왜 낳았을까. 왜 만들었을까!’라며 후회하신다는 것이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출세를 못하면 부모가 후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공부를 못하고 출세를 못해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식이 있는 부모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셨으면 심히 좋았다고 했겠는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심히 기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만족했으니까 그 날을 특별하게 복 주신 것이다. ‘그 날’은 하루라는 의미가 아니다. 마친 날을, 모든 일을 마친 그것을 특별하게 정해서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 인간이 될 때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공부를 잘하고 출세를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다.

불가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복이라고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출가해서 도를 닦을 수 있지 짐승으로 태어나면 몇억 겁을 지나야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내가 요양 중에 만났던 스님에게 “칠십이 넘으셨는데 아직 성불하지 못하셨으니 어찌 하시렵니까?”라고 물으니 “나는 인도 환생하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하셨다. 윤회설을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스무 살이었는데 인도 환생을 해서 또 다시 불도를 닦는다는 것이 끝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행복한 일이다. 그들이 도를 얻지 못하고 끝나 버리면 뭐가 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도를 닦겠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시 태어나면 다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학교 선생님이 다시 태어나면 다시 선생님을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시 태어난다면 더 좋은 것을 해 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세계에 살고 싶다고 한다. 전혀 다른 세계다. 안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만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완벽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데 무엇이 완전하다는 것인가? 둘이 연합하기에 완전하다는 것이다. 사람은 연합하기에 완전하다. 알고 보면 시집 장가만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너무 똑똑해서 시집도 안가고 장가도 안가면 하나님의 창조를 버리는 것이다.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결혼하면 매이니까 혼자 자유롭게 살겠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이 제대로 되었으면 결혼을 하고 싶어야 정상이다. 결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남자가 결혼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고 여자가 결혼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신다. 결혼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워 놓았으면 적령기에 결혼을 해야 되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부모는 굉장히 걱정을 한다. 자식은 자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부모는 자기 일도 아니면서 걱정을 한다. 그것이 아기를 낳고 기른 사람의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창조하신 분의 생각이 그러할 것 아닌가. 하나님은 둘이 연합해서 하나되는 것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연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연합이 되지 않고 바벨탑이 되어 버렸는가? 바벨탑이라는 말은 연합이 안되고 흩어졌다는 말이다. 왜 연합이 안되는가? 선악과가 들어와서 연합이 안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라는 것이 들어와서 연합이 안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선악과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났다. 거기서 선한 것도 끝나고 악한 것도 다 끝났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만 남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만 남으면 이 세상은 정상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은 비정상이다. 나는 많이 가졌고 너는 적게 가졌다는 것, 너는 많이 알고 나는 조금 안다는 것, 이런 것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 많이 갖든 적게 갖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다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살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면서 놀 때는 좋았지만 졸업을 하고 나면 취직이 안된다. 공부를 안하면 뒤에 고생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굶으려면 공부를 안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집이라도 갖고 살려니 공부를 하는 것이지 집도 없이 거적때기 하나 들고 다니며 살려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대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렵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 보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가, 나 때문에 어려운가? 자기 때문에 어렵지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 이상의 기쁨과 만족이 온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늦어서 “선생님, 시장하셨지요.”라고 했을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 일을 하면 그만큼 배가 부르게 되어 있다. 무엇을 먹든지 먹고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겠는가. 소를 잘 먹여야 받을 갈 수 있지 소를 먹이지 않고 받을 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밥을 주시지 않겠는가.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밥을 안주면 일을 못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기도했다. “다른 것은 다 고생을 해도 하지만 굶고는 못합니다. 밥 안주면 일 못합니다. 밥을 안주시면 나에게 일하지 말라는 말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래서였는지 하나님은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셨다. 나는 한 번도 먹는 일로 걱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첫째가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공부도 잘되고 세상 살이도 잘된다.

이 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가! 하나님이 만족하신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겠는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면 나도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내가 만족하게 된다.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도 기뻐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자기를 알아주지 않겠는가. 자기가 남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 주면 그 사람도 나를 알아 준다. 남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연히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을 존경해야 남도 나를 존경하지 내가 남을 무시하는데 남이 나를 존경하겠는가.

세상에도 그러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는가. 옆에 있는 형제를 기쁘게 하면 그 형제가 가만히 있겠는가. 세상 사는 일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남도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한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데 나를 화나게 할 사람은 없다.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엉터리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는가.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시겠는가, 한국어로 하시겠는가.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전해 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감사가 생긴다. 하나님이 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좋은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것이라고 알게 된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한 이 빛은 태양빛과 다른 빛이다. 이 빛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한 존재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귀중하구나.’라고 알게 된다. 이 빛은 이렇게 알게 하는 빛이다. 이 빛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산을 만드셨는지 바다를 만드셨는지 알 수 없다.

빛이 왔으니까 아는 것이다. 식물이 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생명이구나.’라고 알고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생명이 번식하는구나.’라고 아는 것은 그 빛 때문이다. 물질적인 세계는 태양빛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으로 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신기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빛이 왔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맨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뭐가 이러냐.’ 하고 있다. 요즘 선거철이 돌아오니깐 양쪽에서 나와서 얼마나 독하게 욕을 하는지 모른다. 전에는 트위터를 했는데 너무 심해서 그만두고 페이스북으로 옮겨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서로 죽이려고 한다. 6·25때는 이렇지 않았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만일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조선민족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 인생이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어놓고 만족하셨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것을 찾고 있으니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필요를 찾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그 말씀을 듣고 둘이 연합하기에 맞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딱 맞게 만들어졌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기에 맞게 만들어졌다. 공부를 했든 안했든, 돈이 있든 없든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하기에 딱 맞다. 불완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것이다.

씨를 보면 싹이 나기에 딱 맞게 만들어졌다.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들은 씨가 그런 지대에서만 발아하도록 되어 있다. 주목은 씨를 냉동실에서 얼리고 겨울처럼 환경을 만들어 줘야 발아한다. 추운 데서 자라는 식물은 추운 데서 발아하도록 씨가 만들어지고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은 더운 지방에서 발아하도록 씨가 만들어진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딱 맞도록 만들어졌다. 사람은 연합하기에 딱 맞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한다. 공부를 안해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안풀리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좋았다고 하셨는데 안풀리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왜 이것은 안풀립니까?”라며 항의해 보라. “당신이 보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좋아했습니까?”라고 물어 보라. 그러면 대답이 나온다. 성경에는 나를 만들어 놓고 심히 좋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좋다고 하셨는지 질문을 해 보라.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들은 것이다.

‘나는 내가 잘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잘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보고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보고 좋아하십니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 하셨다는데 무엇을 보고 좋다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 보았는가? 물어 봐야 대답을 하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해 주신다고 하면 안된다. 묻지도 않고 대답도 찾지않고 아무것도 안하면 무엇이 어찌된다는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보고 좋다고 하셨는지 질문을 해 보라.

어렸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 “나를 뭐하러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쓸모없는 인생을 뭐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일기장에도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무슨 이유로,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라고 써 놓았다. 그래서 나를 쓰신 것이지 그냥 쓰신 것이 아니다. 내가 질문했으니까 그분이 대답하신 것이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들은 것이지 질문하지 않았으면 대답하셨어도 나는 못알아들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라고 하였다. 지으시던 일을 모두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일을 덜 했는데 설 수 있겠는가. 저녁밥을 늦게 먹더라도 일을 끝내야 설 수 있지 쉬고 싶다고 저녁밥을 먹고 자면 되겠는가.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밥을 굶더라도 일을 끝내야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그런 끼가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할 일을 하고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해야 되지 일도 안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인생이 안된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빈틈이 없다. 안될 말씀을 하신 것도 없고 안되는 것을 된다고 하신 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들을수록 완전하고 볼수록 더 완전하다. 옛날에 모르던 것이 지금은 볼수록 더 완전하다. 다른 책은 처음에 읽을 때는 좋는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새로운 것이 없는데 성경 말씀은 읽을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 같은 말인데도 내가 모르던 것을 계속 알게 된다. 그래서 신기하다.

하나님이 일을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다. 안식하셨으니까 복을 주셨다는 말도 당연한 말이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시험을 치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누구와 차라도 함께 마시고 싶을 것이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나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친구들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매 쉬고 안식하신 것이고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다. 복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도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차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 것과 같다. 맨날 남의 것만 먹던 구두쇠도 자기가 기분 좋으면 찻값을 낸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셨다. 다방에 다니며 껌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절대로 그런 것을 팔아 주지 않던 구두쇠라도 애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껌 한 통 사 주세요.” 하면 두 통 값을 주고라도 그냥 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자기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빨라 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김준곤 목사님이 늘 하시던 비유다. 연애에 열중하고 있는데 껌 사 달라 담배 사 달라 하면 귀찮으니까 5만

원짜린지 만 원짜린지 모르고 내 주고 빨라 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해서 복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복이 진짜 복이다. 인생이 받아야 할 영원한 복이 이것이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창세기 1장의 연속이다. 이 말씀을 왜 2장 앞에 붙여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뒤의 말을 하기 위해서 1장에 쓸 것을 2장에 써 놓은 것 같다. 요즘 말로 하면 ‘들어가는 말’인 셈이다. 다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해 놓은 것이다.

인생은 안식일부터 시작한다. 안식일을 확실히 알면 인생은 출발부터 행복하다. 그러나 안식일을 모르면 ‘인생은 왜 이렇까? 우리 아버지는 왜 돈벌이를 못하는가. 다른 집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은 차도 없는가.’라고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안식일부터 알고 시작하면 내가 태어난 것부터 복이고 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합의 세계로 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와 연합된다. 교회에 오면 형제와 연합되고 집에 오면 식구들과 연합된다. 내가 연합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 누구와도 연합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혼자 똑똑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고 혼자 잘 나려고 할 필요가 없다. 혼자 잘나려고 하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면 평생을 가도 안된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남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남을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한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새기면 인생이 아주 쉽게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갈 수 있다.

나는 어려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길을 잘 들어서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 가시밭길에 있었다면 나는 잘 못살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을 순탄하게 살게 되었다. 길 나름인 것이다. 그 가시밭길에 들어서서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나. 왜 길이 없느냐. 하나님은 왜 가시를 만들어 놓았느냐.’ 해도 소용이 없다. 누가 그 길로 가라고 했는가?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가시밭 길로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이다.

아담에게 처음부터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동산, 그 좋은 데 두시고 이 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아담에게 맡겨 놓으셨다. 최고의 직장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최고의 직장을 버리고 나가서 가시밭길로,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길로 간 것이다. 동산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는가. 자기가 선악과

를 먹고 쫓겨난 것이지 누가 동산에서 나가라고 했는가. 가시밭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가지 않으면 가시밭길이고 그 날부터 고생인 것이다.

육신의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진짜 고생은 마음에서 하는 고생이다. 육신의 고생은 희망이 있고 앞만 보이면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의 고생은 앞이 보이지도 않는다. 보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잠을 자도 고통이고 걸어가도 고통이다. 고통이 들어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쥐가 쥐본드에 붙어 있는 것을 보니 비참했다. 처음에는 발을 하나 디뎠다가 거기 붙은 것인데 나오려고 할수록 더욱 본드에 붙게 되고 마지막에는 꼼짝달짝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 한 발을 잘못 디뎠는데 떼려고 하다가 두 발이 걸리고 세 발이 걸리게 된 것이다. 사람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부터 길을 잘 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고 나쁜 길을 만들어 놓으셨겠는가. 인간의 부모도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든 잘 키우려고 하고 자기는 못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다고 해 놓고 가시밭길에 내놓으셨겠는가.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아무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셨다.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왜 복을 주셨는가? 자기가 만족하니까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쥐어짜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쳐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젖이 없는데 쥐어짤다고 나오겠는가? 아프리카의 실상을 보여 주는데 엄마 젖이 안나오니까 아기가 못먹어서 죽는 것이었다. 엄마가 풍성해야 아기에게 젖이 많이 갈 수 있지 엄마가 굶으면 아기에게 줄 젖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색하신 분이 아니라 넉넉한 분이다. 사람이 외면하고 돌아가니까 못먹는 것이지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란다.